

하얀 종이 위에 쓰고 싶은 말

-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 입니다.
- 나의 빈자리가 당신으로 채워지길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움 입니다.
-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즐거움 입니다.
- 라일락의 향기와 같은 당신의 향을 찾는 것은
그리움 입니다.
- 마음속 깊이 당신을 그리는 것은
간절함 입니다.
- 바라 볼수록 당신이 더 생각나는 것은
설레임 입니다.
-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보다 말하지않아
더 빛나는 것이
믿음 입니다.
- 아무런말 하지 않아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편안함 입니다.
- 자신보다 당신을 더 이해하고 싶은 것이
배려 입니다.
- 차가운 겨울이 와도 춥지 않은 것은 당신의
따뜻함 입니다.
- 카나리아 같은 목소리로 당신 이름 부르고
싶은 것이
보고싶은 마음 입니다.
- 타인이 아닌 내가 당신곁에 자리하고 싶은 것은
바램 입니다.
- 파아란 하늘과 구름처럼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음은
존중 입니다.
- 하얀 종이 위에 쓰고 싶은 말은 사랑입니다

주제 : 먹고 사는 일

오늘 하느님의 말씀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겪어야 할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만, 사람에게에는 세 가지 기본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잠자는 일과 내 후손을 퍼트리는 일 그리고 먹는 일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욕구 모두 중요하지만 중요한 이 욕구를 어떤 방법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옳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하느님의 말씀은 이 먹는 문제는 단순히 육체의 힘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만으로 해석하면 전체의미를 모르는 것이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잠자는 일과 자손을 퍼트리는 일은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먹는 문제는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에 몇 차례 등장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인 성체성사에 관련된 의미가 거기에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심오한 내용을 알아듣고자 한다면, 좀 더 정성이 담긴 자세로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의 의미를 알아듣고 거기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 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육체의 병을 고치고 현실 삶에서 도움을 얻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에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고 양식이 없다고 고민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기에 한창의 갈등과 걱정 끝에 먹는 일에 관한 문제를 꺼낸 제자들에게 별 고민도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고 명합니다. 예수님의 고민거리는 먹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는 했습니다만, 제자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힌 문제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제자들의 호소를 바탕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빵이 남는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면 세상에 사는 우리가 행동할 모습도 내가 진정으로 참여

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실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커다란 문제는 육체의 배고픔이 주는 것보다는 정신의 배고픔이 더 큰 문제이고, 삶의 기준을 제대로 알아들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소리는 이사야예언자도 말씀하십니다. 애써 벌어들인 돈을 사용하되 제대로 된 양식을 사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휴가시간을 갖고 하느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면서 산다고 말하면서도 정말로 올바른 자세로 그렇게 하는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말은 있습니다만, 무심코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모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먹더라도 올바른 것을 고를 줄 알아야 하고 먹더라도 좋은 것을 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와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배가 부르다고 해서 세상살이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하느님의 창조, 사람들이 갖는 마음의 여유, 하느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일의 의미를 무조건 축소하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과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하고 소홀히 함으로써 생기는 삶의 공허함과 병폐는 생각보다 더 갈등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를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내 삶이 구속받기 싫다는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눈길에서 도망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분명해 보이는 세상에도 우리의 지능과 지혜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간절한 선언이나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고 내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양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자 하는 힘, 성체에 대한 합당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자 시간을 내신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올바른 열매를 맺어 내 삶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피는 시간도 필요한 일입니다.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히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쁨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제를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본 당 소 식

◎ 각 구역장 및 단체장 간담회 안내

- ▶ 때: 8월 9일 -주일미사 후
- ▶ 곳: 교육관
- ▶ 안건: 본당 창립축하미사 준비에 관한 건.
- ▶ 주관: 본당 주임신부님
- ▶ 기타참석자 : 사목회장, 부회장, 총무, 공동체분과장

#해당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국에서 방문해주신 박문여고 교장 수녀님께서 성모동산 건립 기금으로 \$300을 헌금하여 주셨습니다.

◎ 행사 안내

- ▶ 유아세례- 2009년 8월 9일
- ▶ 첫 영성체- 8월 16일
- ▶ 영세자 세례식- 9월 13일
- ▶ 견진성사- 9월 20일 (해밀톤 교구장님 집전)

◎ 2009년 여성 꾸르실료 주말 신청 안내

- ▶ 일 시: 2009년 10월 15일(목) ~ 10월 18일(일)
- ▶ 장 소: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re
- ▶ 신청마감: 9월 15일
- ▶ 참가비 : \$ 320.00
- ▶ 문의: 울프레야 간사 (김현태 요셉)

◎ 교육청소년분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주일학교 및 중고등부 청소년부 지도교사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노재현(아킬레오) ☎ 519 590 4493
노동원(라자로) ☎ 519 220 1503

◎ 성가대에서 알려드립니다.

PARISH LIFE CENTRE 기금 마련을 위해 ST. ANTHONY DANIEL 성당 주최로 우리 본당 성가대와 EASTWOOD HIGH SCHOOL 합창단이 공동으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11월 13일 (금) 7시 30분

문의 : 문혜라(크리스티나) ☎ 519 208 0565

◎ 견진성사 신청안내

오는 9월 20일 본당 창립기념미사 때 견진성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견진교리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오니 구역장들께서는 견진 대상자를 파악해 주시고, 총구역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교리 공부 안내

새롭게 시작하는 예비자반 모집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문의 : 박재영(바오로) ☎ 519 747 4981

◎ 소성당, 교육관 출입문 이용 안내

전자키 패스워드는 사목회장, 부회장, 총무, 관리분과장에게 문의하시면 알려드립니다.

◎ 8월 안내 담당은 워털루 1구역입니다.

- ▶ 9월 : 워털루 3구역
- ▶ 10월 워털루 2구역

◎ 교육관 관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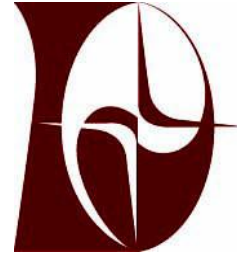
- ▶ 워털루 1구역 8월
- ▶ 워털루 2구역 9월

◎ 온타리오 한인 성당 합동 신앙대회

- ▶ 일시 : 9월 5일(토)
- ▶ 장소 : Midland Martyrs Shrine
- #-본당 사목위원들은 필히 참석하시고
- 약도등은 본당 인터넷 클럽을 참조하세요

◎ 평일미사에 많은 참례바랍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참례하면 좋겠습니다.)

▣ 본당신부 단상(斷想)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 lucasmuse@korea.com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 519 894 3533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주일 오후 5시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

미사 전 20분

1주일 전 신청

22009-33호

2009. 8. 2.

연중 제 18일

미 사 전 레

해 설 박명옥 차주 해설 노재현

성 가

입 당 (32) 언제나 주님과 함께
봉 헌 (210) 나의 생명 드리니
성 체 (166) 생명의 양식
퇴 장 (34)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
화 답 송 ◎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백성들에게 주셨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빵을
주셨으니,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독 서
8월 2일 이동기 이정숙
8월 9일 김현태 김진선

봉 헌
8월 2일 김근효 김순희
8월 9일 김현태 김진선

복 사
8월 2일 안아림 호 동
8월 9일 최예슬 이수민

♥ 우리들의 정성 ♥

2009년 7 월 26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730.00
교 무 금 : \$
감 사 금 : \$
성전건립 : \$ 50.00 194(40) 214(10)
(성모동산 누계 : \$ 1545.00)
합 계 : \$ 785.00